

## 법학과 법정보의 살아있는 정보매체

2012년 6월호는 『考試界』 창간 56주년을 기념하는 특별호이다. 56년간 『考試界』는 단순히 수험생의 동반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학계와 법조계를 소통하는 최고의 매체이자 단일의 매체였다. 1956년이라는 척박한 한국적 현실에서 『考試界』가 창간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역사의 우연이자 필연이다. 아직 전쟁의 상처가 아물지 않은 시점이라 모든 것이 어수선하고 손에 잡히지 않는 상황인 데에도 불구하고 법률가들의 등불을 밝혀 주는 『考試界』가 창간되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考試界』는 축복의 산물이다.

사실 그 즈음에 법률가들에게는 제대로 된 소통의 장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었다. 특히 미래 한국을 짊어질 젊은 법학도들에게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였다. 아직도 법학계와 법조계가 일제 식민잔재를 청산하지 못하고 있던 시점이었다. 법 중의 법이라는 민법은 일본의 의용민법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던 시점이었으니 말이다. 법조계뿐 아니라 법학계도 이제 겨우 교과서류가 발돋움할 시점인지라 법학도들에게 정보의 빈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은 충분히 짐작이 간다. 교과서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유일한 방책이 『考試界』를 통해서 발표되는 교수님들의 소중한 옥고뿐이었으니 그 시절 『考試界』의 소중함은 더 이상 특별한 부언이 필요 없어 보인다. 40여 년 전 필자의 법대생 시절에도 마찬가지의 상황은 지속되었다. 이번 달 『考試界』에서 교수님들의 어떤 논문이 발표되었는지, 사법대학원 학생들의 예상답안은 어떤 것인지에 관한 정보를 터득하느라고 매월 『考試界』 간행일을 손꼽아 기다리곤 했다. 바로 그런 점에서 『考試界』는 법학도의 필수적인 동반자였다. 『考試界』를 단 몇 권이라도 갖고 있지 아니하면 법학도 행세를 할 수 없는 시대였으니까 말이다.

## 성 낙 인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그 사이 세월의 변화는 법률문화의 변화와 법률가 충원시스템의 변화로 이어졌다. 고등고시 시대를 마감하고 사법시험시대를, 고시합격자 연수도 사법대학원을 거쳐서 사법연수원으로 이행했다. 그런데 이제 사법시험도 2017년을 끝으로 마감한다. 동시에 전국적으로 수많은 국가적 동량들을 배출한 25개 로스쿨 설치 대학의 법과대학도 종착역에 이른다. 이를 대체하는 법학전문대학원 소위 한국판 로스쿨은 벌써 1기생을 배출하여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그 과정에서 『考試界』의 위상과 역할도 변화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었다.

수험생은 이제 학부 법과대학의 법학도에서 로스쿨 대학원생으로 바뀌면서 『考試界』가 감당하여야 할 수험생의 범위에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과도기적으로는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법학도, 로스쿨을 준비하는 예비법학도,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로스쿨생으로 다층화되어 있다. 행정고시도 일차시험이 PSAT로 대체되면서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외무고시는 외교아카데미의 설치로 전통적인 의미의 외무고시는 종언을 고한다. 급격한 변화의 와중에 『考試界』의 지향점이 어디가 되어야 할 것인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더더구나 고도정보사회에 있어서 月刊 『考試界』가 제공하는 정보는 이미 최신 정보로 보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月刊 『考試界』는 예나 지금이나 굳은 생명력을 이어갈 것이다. 한 동안 그렇게도 많이 쏟아져 나왔던 법률관련 월간지들이 이미 종적을 감춘지 오래다. 그래도 『考試界』만은 법학자, 범조실무가, 법학도의 친근한 이웃으로 남아 있다. 『考試界』의 생명력은 바로 대한민국 법률문화의 희망이기도 하다. 부디 『考試界』가 우리나라 법률문화 창달의 산 증인으로서, 또한 법률가와 법학도의 친근한 이웃으로 기리남아 환력과 고회를 넘어 백년을 자축하는 그날이 오기를 기대한다. 다시 한번 『考試界』 창간 56주년을 축하드리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考試界』와 함께해 온 『考試界』 가족 여러분에게도 축하드리고자 한다.